**수 신: 자동차 담당 기자님**

**배포일자: 2021년 6월 1일(화)**

**관련자료: 표**

**현대차, 2021년 5월 32만 3,129대 판매**

- ’21년 5월 전 세계 시장서 총 32만 3,129대 판매, 전년 대비 42.7% 증가

- 국내 시장에서 총 6만 2,056대 판매, 전년 동월 대비 12.4% 감소

- 해외 시장서 총 26만 1,073대 판매, 전년 동월 대비 67.7% 증가

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구분 | **2021년** | 2020년 | 전년동월대비 | 2021년 | 전월대비 | **2021년** | 2020년 | 전년누계대비 |
| **5월** | 5월 | 4월 | **1-5월** | 1-5월 |
| 국내 | **62,056** | 70,810 | -12.4% | 70,219 | -11.6% | **317,668** | 300,913 | 5.6% |
| 해외 | **261,073** | 155,646  | 67.7% | 279,078 | -6.5% | **1,354,972** | 996,600 | 36.0% |
| 계 | **323,129** | 226,456 | 42.7% | 349,297 | -7.5% | **1,672,660** | 1,297,513 | 28.9% |

현대자동차는 2021년 5월 국내 6만 2,056대, 해외 26만 1,073대 등 전년 동기 대비 42.7% 증가한 32만 3,129대를 판매했다.

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 판매는 12.4% 감소, 해외 판매는 67.7% 증가한 수치다.

**■** 국내판매

현대자동차는 반도체 부족 현상 등 영향으로 국내 시장에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.4% 감소한 6만 2,056대를 판매했다.

세단은 그랜저가 7,802대, 아반떼 6,697대, 쏘나타 5,131대 등 총 1만 9,723대가 팔렸다.

RV는 팰리세이드 5,040대, 싼타페 3,479대, 투싼 2,988대 등 총 1만 5,981대가 팔렸다.

포터는 6,930대, 스타리아는 3,232대 판매를 기록했으며, 중대형 버스와 트럭은 2,815대가 판매됐다. 특히, 파비스, 마이티 등 차종의 판매 증가로 중대형 트럭의 판매는 전년 대비 31.2% 늘었다.

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G80 5,584대, GV70 4,336대, GV80 1,531대 등 총 1만 3,031대가 팔렸다.

**■** 해외판매

현대자동차는 5월 해외 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.7% 증가한 26만 1,073대를 판매했다.

판매량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(코로나19)로 인해 발생한 공장 생산 차질 및 판매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 때문이다.

현대자동차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편, 판매 정상화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.

현대자동차 관계자는 “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각 권역별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이어가겠다”며, “주요 신차들의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 [끝]